

항해하는 배

지난 6월 6일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 미사에서 추기경님의 추천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하고 서품되신 마산 교구 왕영수 신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어서 나누어 봅니다. 당신이 피정의 집을 지으려고 사 두신 임야로 도로가 나면서 그 땅에 대해 엄청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졸업하신 고등학교에 해 줄 것이 없을까 생각하시다가 보상금 전채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일을 했다는 평화는 커녕 마음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성찰한 결과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하지 못 할 일을 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원인을 알게 되신 신부님은 기도하시면서 식별하고 힘을 얻어 그것을 내려놓으셨고 그제야 참된 평화가 오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처음 가지셨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목적은 완성을 실현하려는 의지이며 목표는 목적을 위해 거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앞의 사례를 통해 보면 보상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목표이고, 목적은 사랑의 마음을 통해 하느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에만 만족하며 머무른다면 목적에 이르는 못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 깔린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비롯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쟁과리와 같을 것입니다(1코린 13,1 참조)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또다시 기다림의 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화해를, 어떤 분은 자선을 또 어떤 분은 희생을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절제나 봉사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기다림의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화해나 자선, 희생이나 절제, 봉사 자체에 만족하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더 근본적인 목적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작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하여 계획하는 화해, 자선, 절제, 봉사와 같은 덕목은 그 자체로서도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덕목을 통해 예수님께 이르게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 태어나실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이 기다림의 시기의 유일한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방향이 없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배입니다.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2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페 4,15 ㄱ)

가정교리 (8)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경은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창세 1,1)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곧 하느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풍요롭고 다양하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누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인데 이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둘째, 천지 창조의 동기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셋째,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자연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 선, 사랑을 보며 감탄합니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찬미받으소서, 87항)라고 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은 모든 피조물의 기원과 목적을 생각하게 하여 삶과 행동 방식을 방향 짓습니다.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45-48 참조) **금빛**

교황님 한 말씀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 인간의 형제애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야를 넓히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관심사를 넓히십시오. 다른 이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 11월 9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 교리 교육 중 -



본당 소개

대구 각산성당



대구시 동구 이노벨리로(각산동)에 위치한 각산성당(주임신부 : 노건우 루카)은 2016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2020년 7월 현재의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성당이 위치한 지역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며,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 신자 비율이 높습니다. 중장년층 신자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들인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성당입니다.

노건우 주임신부는 “꿈 많은 소년소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속 세상을 현실로 만들며 사는 곳, 진심과 순심 그리고 동심으로 서로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곳이 각산성당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2023년부터 지낼 친교의 해에는 공동체 역사가 짧으니 만큼 만남의 장을 활성화하여 더욱 정(情)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사목 방향을 밝혔습니다.

취재 : 박현식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기자
사진제공 : 각산성당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Blessed be God forever.

[영어] 블레스트 비 갓 포에버.



神様、永い賛美をお受けくださいませ。

[일본어] 카미사마, 나가이 산 비 오 오 우 게 쿠 다 사 이 마 세 .



愿天主永受赞美。

[중국어] 위엔티엔 주 용 쇼우 잔 메이.



Chúc tụng Thiên Chúa đến muôn đời.

[베트남어] 쭈 쉰 텅 티엔 쭈어 텅 무언 더이.



Bendito seas por siempre, Señor.

[스페인어] 벤디토 세아쓰 뽐 씨엠쁘레, 세뇨르.

교회의 상징들



- 익투스 -

초대 교회때에는 박해가 워낙 심하여, 신자들끼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익투스(ΙΧΘΥΣ)라는 암호를 사용하였습니다.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Θεοῦ Υἱός, Σωτήρ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의 앞 글자를 모은 것으로 익투스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뜻 합니다. **금빛**

찬미받으소서(7)

생물 다양성의 감소



▶ 읽기

33항: 해마다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매우 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수많은 생물종들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 자체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 생각하기

Q. 생물 다양성, 왜 중요할까요?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균류, 해조류, 벌레무리, 파충류, 그리고 셀 수 없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필요합니다. 개체 수가 많지 않은 종들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의 생태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들이 균형을 이룰 때는 스스로 물과 공기의 오염 물질 정화 및 토양을 유지하며 기후를 조절하고 질병 발생을 막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물 다양성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생

물종의 소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에 따른 손실은 막대합니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에서 식량과 식물, 섬유질, 약을 얻는 인간에게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 실천하기

「찬미받으소서」42항: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과 존경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에 속해 있는 인간 또한 자연과의 공생, 타종들과의 동행 없이 혼자 살아 갈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생각하면서 아래 QR코드를 통해 현재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지 현실을 직시 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빛**



플래닛타임즈 홈페이지_심각한 환경 문제를 알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지구 수호 미디어

생명·사랑 실천

고양이의 삶을 되돌려준 며느리

지난 4월에 결혼한 큰아들 부부의 주선으로 온 가족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휴가 중 미사를 하기 위하여 휴가지에서 한 시간 가량 운전을 하여 진목정 성지에 도착 하였는데 고양이 울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자세히 들어보니 내 차량 엔진 쪽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보닛을 열어보니 새끼 고양이가 엔진에 꼭 끼여서 혼자 나오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온 가족이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한참 궁리하던 작은 아들이 범퍼를 제끼니까 새끼 고양이가 나오더니 도망을 갔다. 고양이가 다치지는 않았구나 안심을 하고 성당에 들어갔다. 미사 후 돌아가려는데 며느리가 이 고양이는 귀도 잘려있고(중성화수술 한 길고양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여기 두면 안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고양이에 대해 무지하여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며느리 고집에 하는 수 없이 온 가족이 고양이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고양이에게 낯선 곳이어서인지 근처 풀숲에 웅크리고 있었다. 며느리와 덩치가 산만한 큰아들이 먹을 것 으로 유인하며 고양이를 부르니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먹이를 받아 먹었고, 고맙게도 고양이가 잡혔다. 상자에 먹을 것과 함께 고양이를 넣고 출발지로 되돌아갔다. 차안에서 고양이는 얌전히 잘 있어 주었다. 밤새 주차했던 공터에 도착하여 고양이를 내려주었고 한참을 지켜보니 다소 떨어져 있는 다른 고양이들에게 가서 같이 놀았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며 행복감이 차올랐다. 아까는 며느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다.

“네가 오늘 큰일 했네. 고양이 삶을 되돌려 줬네.”하니 며느리가 배시시 웃었다.

평리 성당
이원규 다니엘



이원규 다니엘 가족

몸의 신학 (6)

공동체를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존재와의 인격적인 관계맺음 안에서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기 존재의 원천인 하느님을 찾게 되고, 찾아야만 한다.

사람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자신의 원초적인 고독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느님은, 비록 사람이 당신을 감각적으로 만나고 관계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바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하느님의 모상, 너”이다. 사람은 타인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품격을 지닌 타인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맺음 안에서 사람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살아가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야 한

다.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살아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사람임을 아시기에, 사람에게 그 품격에 알맞은 협력자, 동일한 인격체를 만들어 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창세 2,22-23) 이로써 사람은 자신과 존재적인 품격이 동일한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을 살아가도록 정향되어진 존재임이 드러난다.

석상희 요셉 신부
(교구 사목국 차장)



부부 이야기

“행복하기 위해서요.”

“영어시험 너무 어려웠죠” 대학원 시험 끝나고 옆자리에 앉았던 데레사에게 무심코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본 데레사는 첫눈에 반할 정도로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당황한 데레사는 저랑 말 섞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이상형과 완전 반대인 사람이 말을 걸어 데레사는 무척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학교생활은 데레사와 친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연락이 올 때면 만사를 제쳐두고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졸업 후 데레사는 꿈을 찾아 지구 반대편까지 떠났고 속절없이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데레사가 그리워지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먼 곳까지 가서 프로포즈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 후 데레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동화 속 왕자와 공주 이야기의 결말처럼 행복한 혼인 생활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불만과 실망감이 표출되기 시작되고 갈등과 말다툼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데레사는 저와 대화가 전혀 안 통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면서 다시 혼자 외국 가서 살고 싶어했습니다. 저도 온갖 걱정을 안고 사는 예민한 데레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자 생활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공간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공허감은 더 커져만 갔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 차쯤 데

레사와 ME 주말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ME에 참가한 2박 3일 동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동행의 시작이란 걸 알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데레사가 내게 전하고자 하는 작은 울림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통해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서로의 속마음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기새가 재잘거리듯이 대화가 고픈 데레사에게 무뚝뚝한 저는 그 속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데레사의 예민함을 탓한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혼인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어김없이 “행복하기 위해서요”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행복을 느끼려고만 하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은 배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ME를 통해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고 서로의 갈등도 좀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ME는 저희 부부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최고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



변정환 마르코, 이재환 데레사 부부
(ME 대구협의회)



한줄

성경말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테살 5,16-18)

독자투고

“추억은 아름다워라~”



맨 앞줄 중앙, 필자

지금으로부터 딱 70년 전! 성모당은 완전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숲이 우거졌고, 온갖 새들이 모여서 사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직자 묘지는 늘 음산하고 으스스하며, 낮에도 무섭고 겁이 나서 가 볼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미사도 항상 새벽미사 뿐이어서 엄마가 깨우시면 억지로 일어나서 찬마룻바닥에 깔고 앉을 방식을 챙겨 끼고는, 캄캄한 새벽길에 엄마를 놓칠까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지금 유스티노 신학원 바로 건너편이었는데, 그 시절엔 육군 병원이라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옆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큰 연못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연못이라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도 엄마한테 혼날까 찌소리 못하고 따라다녔답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이었거든요!

저의 어머니께서는 자식들 교육에 대해서는 참으로 엄하시고, 용기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남매들은 지금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며, 어느 유산보다 더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놀이터였고, 청정 지역이었던 성모당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수성당 김혜인 세레나

추억속으로

사제 서품식



1951년 故 김수환 추기경 사제서품식(정하권 몬시뇰과 함께, 계산성당)



1965년 故 이문희 대주교 사제서품식(프랑스 성 술피즈 성당)

(제공: 교구사료실)

부모와 자녀 관계 (8)

부모는 시공간을 떠나 자녀 내면에 존재하며 자녀와 관계한다.

누군가의 자녀인 우리는 시공간을 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떠올려 관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살아가며 부모인 우리를 떠올려 함께할 것입니다. 자녀 마음에 우리는 어떤 부모 이미지, 표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자녀에게 '어떤 순간에도 부모는 나를 보호해 주고 충족시켜 줄 거야.'라는 믿음은 사회 정서적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완벽히 의존했던 순간부터 계속된 관계를 통해 축적된 정서 내용을 이미지로 남깁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이미지는 관계의 틀로 작용하는 대상 표상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대상 표상을 가진 자녀는 부모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자동 업로드해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이롭게 사용합니다. 부모와 갈등 후 실망하더라도 내면에 존재하는 긍정적 표상이 신뢰를 주어 화해가 쉬워지고 상호 협조를 돕습니다. 그러나 대상 표상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일 경우, 자녀는 부모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혼란스러워서 부모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업로드되지 못해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현재 모습을 새롭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불안정한 대상 표상의 영향으로 결핍된 자신을 위해 접근하기 쉬운 다른 대상을 찾게 되지만 건강한 관계로의 발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와 편안하고 충족된 정서적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절대적 시간의 양은 자녀의 특성과

발달 수준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자녀가 충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양 못지않게 함께하는 내용이 질로써 중요합니다. 자녀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체험하고 도전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충족해 주고 살아있는 즐거운 놀잇감의 대상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로 접어들어 점차 자녀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터는 '서로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부모에 대한 느낌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흥미, 가치관 등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여 자녀 입장을 인정하고 일치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다루어내는 수평적 상호 관계를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우리를 충분히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안정된 자신을 제공하고 허락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녀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거리에서 안정된 정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부모 자신을 돌보는 것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난번 부모 마음에 대해 다루었던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늘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편지글

어머니, 당신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 나의 가족들에게 -

2022년 9월의 가을. 삶의 가파른 여정 가운데 아내, 어머니로서 무게를 잠시 밀쳐놓고, 길을 잃고 서 있었을 무렵 낯설고도 생경스러운 '어머니, 당신은 가정의 중심입니다.'라는 글귀를 마주하게 되었어. '너 어디를 헤매 이고 있니?' 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듯 단풍 든 이파리 한 장에 아릿했던 가을,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의 첫날이었지.

나의 이야기, 아들 마리노, 딸 마리아, 딸 헬레나 너희들의 이야기, 남편 다미아노의 이야기를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조별 나눔과 정 속에서 때로는 물어 두웠던 힘들이기도,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던 속내를 드러내 보이면서, 나의 감정에 익숙해져 이해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또, 가족 모두가 끝없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고, 믿음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가족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되돌아보기보다는 그대들의 문제만을 들여다보며 평가하고 판단하던 나의 부족함 알게 되었음을 고백해.

4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언젠가 또 다른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시작에서부터 수료까지 아니 현재까지도 애정 어린 울타리처럼 든든하게 지켜준 우리가족, 그대들의 배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모과차가 익어가는 11월 수줍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전합니다.

복현성당 장수임 크리스티나



장수임 크리스티나 가족과 함께

교황님 담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요약)

-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92[91],15) -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92[91],15)는 시편 저자의 이 말은 기쁜 소식, 곧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든이에게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래도록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꺼려야 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살아 있는 징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나이 들고 머리가 하얗게 세어도 끊임없이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시편 71[70],14-20 참조)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이 육체의 자연스러운 쇠함이나 피할 수 없는 세월이 아니라, 장수를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사를 받고 전례에 참여하면서 우리 내면의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와 더불어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도 돈독히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자녀, 손주들에게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기도로 그들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노년은 항해를 포기하고 돛을 접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맺으라고 부름받은 열매는 세상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현명하고 겸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구원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빵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닌 가장 소중한 도구이며 참으로 우리 나이에 가장 어울리는 일인 기도를 더욱더 자주 언제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움으로써 이 혁명을 이루어 갑시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 ‘장수를 누리게’ 해 주신 모든 이와 더불어 경축하고자 하는 교회의 바람을 다시 한번 기쁘게 선포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고독의 그늘과 전쟁의 마수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온유한 사랑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우리 모두를 온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이 되게 해 달라고 청합시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저의 사랑 어린 친밀함의 약속과 함께 교황 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원문

활기찬 노년

제7회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

- 8개 본당 시니어들의 열띤 경연 -

교구 가정복음화국(국장 :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은 코로나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를 재개하였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대구대교구 성김대건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으로 8개 본당(감삼, 대명, 대봉, 두산, 상인, 성바울로, 신서, 월성)에서 65세 이상의 교우들로 구성된 합창단 총 400여 명이 준비하여 참여하였다. 지난 대회 사랑상 수상팀인 계산성당 합창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맑은소리하모니카양상블’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날 본당의 응원단과 관객을 포함한 1,000여명 이상이 모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시니어 합창단을 응원하였다.

조환길 타대오 교구장님은 “성가를 통해 주님을 찬미하므로 건강해지고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며 행복한 노년의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의 전통에 따라 모든 본당이 수상하였다. 평화상(감삼), 기쁨상(대명), 은총상(두산), 행복상(상인), 영광상(월성), 소망상(신서), 믿음상(대명), 사랑상(성바울로)이 수여되었다.

취재 : 유동수 안드레아 | 살레시오 기자



: 찬양하여라.”(시편 146,1)

제 7 회 시니어 성가합창 경연대회

월성성당 경연 모습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재료: 낙지 4마리, 무 약간, 표고버섯, 팽이버섯, 다시멸치육수, 배추, 쪽갓, 바지락



낙지 내장과 먹통 제거 후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는다.

다시멸치육수를 우려내고 무를 넣어 밀국물을 낸다.



들어갔을 때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는 배추통, 버섯, 쪽갓대와 바지락을 준비하고 일부 재료는 넣기 좋게 잘라준다.

위에서 준비한 국물 재료 중 야채를 먼저 넣고 바지락을 넣어 국물을 완성한 후 낙지와 쪽갓, 배추잎을 넣는다.



소금이나 소량의 국간장으로 간하여 심심하게 먹는다.



Tip! 낙지는 연체류로서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타우린 성분을 가지고있는 우수한 영양 식품이다.

웰다잉

주께 있네~~~

어느새 한 해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는 11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는 위령성월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에 주님께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민 여성이 우리말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날 “한국 사람들은 신앙심이 대단히 좋다”고 놀라워하며 감동스럽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끝마다 “주께 있네”라고 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을 많이 듣는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귀찮아 죽겠네. 바빠 죽겠네.

날씨가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식사하러 가며 배고파 죽겠네. 식사를 하고 나면 배불러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웃겨 죽겠네....

우리는 일상에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 어느 때나 쉽게 “~~~죽겠네”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말을 배우고 있는 이주민 여성에게는 우리가 말끝마다 붙이는 “죽겠네”라는 이 말이 “주께 있네”로 들렸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신앙심이 높은 것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저마다 일상 안에서 “죽겠네”하는 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볼까요?

이제부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요?

일을 하면서 즐겁거나, 기쁘거나, 귀찮아지거나, 바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주께 있네. 날씨가 화창하여 좋을 때도, 눈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나 냉혹한 추위와 더위가 우리 곁에 찾아올 때에도 주님께서 이런 모든 날씨에 함께 하시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배고프고 배부를 때에도 주께 있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 글을 쓰는 어려움도 주께 있네.^^

“죽겠네”라는 죽음의 단어에서 받침 하나 뒤로 밀어 보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고백하는 “주께 있네”의 말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놀라움을 만납니다.

그리고보니 나의 입술에서부터 모든 일이 “주께 있네”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오늘도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는 “죽겠네”보다는 “주께 있네”로 주님을 찾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을 만나며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 그동안 웰다잉에 대해 글을 써주신 권경은 노엘라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경은 노엘라 수녀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노년의 향기

본당에 핀 봄꽃

- 시니어 성가 합창 경연대회 참여소감 -

“용장 밑에 약졸 없다^^!” (權야고버)

“우리의 사랑상은 수준이상의 지휘에 의한 결과다.” (李라우렌시오)

“처음에는 이 두곡을 과연 악보 안보고 외워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습을 하고 관심을 가지다보니 외워 지는 게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포기할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계기를 통하여 두뇌훈련도 하고 심신수련에도 참 좋다고 느꼈고 덤으로 사랑상의 영광까지 안았으니 한없이 기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 좋은 지도해주신 우리 이은희 요안나 지휘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朴도미니꼬) “노랫 말 처럼 <주님이 지으신 찬란한 세상>을 찬미하며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간절하게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이었습니다.” (咸비비안나)

주일미사 후에 시간을 내어서 연습할 때 주임신부님께서 박수쳐 주시던 시간 등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았고, 간식을 준비해 주시던 자매님들의 정성도 거룩하고 이쁘게(?) 느껴졌고, 가사를 익히려고 단체톡방에 오른 녹음 해둔 파일을 자동차 안에서 크게 따라 부르던 우리들의 모습이 대견하게 생각됩니다. 기도인 성가를 함께 부를 때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가했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자부심과 즐거움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 본당에 화사한 봄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젊은(?) 50여명>은 어린아이들처럼 춤이랑도 추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바울로성당 공동체 만세!!

성바울로 성당
장종태 안드레아



산책로

대구수목원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대곡동)에 위치한 대구수목원은 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탈바꿈시켜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시민들의 자연 탐구 및 식물 학습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000여종 450,000여본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둘레길과 산책로 또한 잘 갖추어져 있어 가볍게 나들이하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금빛



자 가 용

내비게이션 ‘대구수목원’ 검색
(성모당 기준 30분)

대중교통

1호선 명덕역 → 진천역 하차(달서5환승)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후문1 정류장 하차(성모당 기준 48분)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환길 주간: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E-mail. dgfamily@dgca.or.kr

Fax. 053-250-3078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마지막 주일 발행

가족성지순례 (8)

가톨릭 목포 성지



가는길

자가용 내비게이션 '가톨릭 목포성지' 검색(성모당 기준 3시간 20분)

대중교통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목포종합버스터미널(200 버스 승차) - 호남동119안전센터 정류장 하차(성모당 기준 5시간 20분)

전남 목포시 노송길 35에 위치한 가톨릭 목포 성지는 1866년 병인박해를 피해온 교우들에 의해 형성된 곳으로 광주대교구의 신앙이 처음 전파된 시원지이자 옛 교구청이 위치한 신앙의 요람이다.

이곳은 한국전쟁 때 순교한 제4대 교구장 패트릭 브레넌 몬시뇰, 산정동 성당 토머스 쿠삭 주임신부, 존 오브라이언 보좌 신부가 북한군인들에 의해 처형된 순교 사제의 사목지이다. 이 세분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으로 시복 시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성지에는 레지오 마리아 기념 성당과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 역사 박물관(옛 교구청)이 있다.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은 1953년 5월31일 한국에 레지오 마리아가 광주대교구 제 5대 교구장 하롤드 헨리 신부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 2017년 9월 30일 축복 미사와 함께 개관하여 3개 뿌리시디움(치명자의 모후, 평화의 모후, 죄인의 의탁)이 주회를 시작한 곳으로, 피정과 교육, 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레지오 마리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산정동 기념 성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에 따라 2021년 5월 10일 자로 '준대성전'의 칭호와 품격을 부여받았다.

전대사 날에 이곳 성당을 방문 하면 전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 살레시오 기자



52호 가정미션 : 성탄을 기다리며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대림환을 꾸며봅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미래를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것과 현재를 즐겁게 보내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2.11.27.(주일) ~ 12.11(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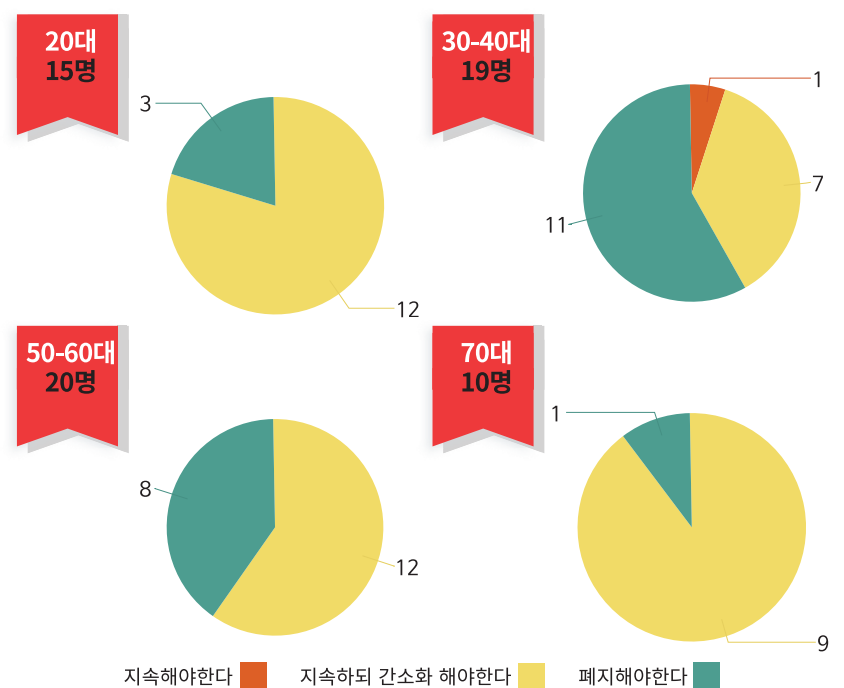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52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1. 성별 및 연령대 : (세)
2. 미래를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것과 현재를 즐겁게 보내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 ○ 현재를 즐겁게 보내는 것

지난(51)호 설문 결과

주제 : 전통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지사항

가정복음화국 사무실 이전

가정복음화국 사무실이
교육원 가동_
사회복지국 3층으로
(구, 효성여고)
이전하였습니다.

전 시

도예전
'손으로 빛다'

장소 예담갤러리
작가 배찬영 세라피나
기간 2022.12.1 - 21

※ 전시 수익금 일부는 해외 선교지 어린이들에게 쓰입니다.

전 시

전시회
'포슬린 아트전'

장소 가톨릭여성교육관
갤러리 1981
작가 윤수정 마틸다
기간 2022.10.26 - 30

전 시

'제2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마그마힐링전'

장소 가톨릭여성교육관
갤러리 1981
주최 성모유치원
기간 2022.12.15 - 12.22